

## 중소기업 살리는 '50조 자금공급펀드' 조성 시급

---

2009.01.13 | 김병권\_새사연 연구센터장 | bkkim21kr@saesayon.or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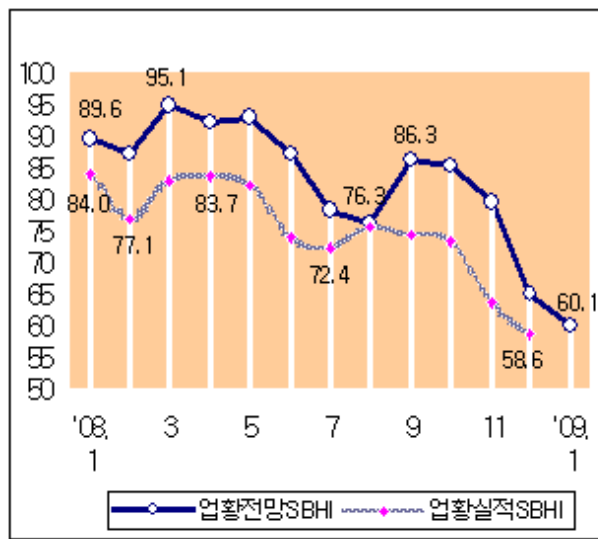


---

<http://saesayon.org>

원자재 가격 폭등과 납품가 정체, 환율 불안과 키코(KIKO) 환헤지 상품 피해,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경영난을 겪어온 중소기업이 최근 수출과 내수의 동시 추락에 따른 '일감 부족'과 '판매 부진'의 늪에서 연초부터 악전고투하고 있다.<sup>1)</sup>

[그림1] 중소기업업업황 전망 추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올 1월 중소기업업업황 전망이 1년 전에 비해 30퍼센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심리적 체감경기가 사실상 공황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일감이 줄어들고 그나마 생산한 제품도 판매되지 않으면서 생산설립수준 114퍼센트, 재고수준 113퍼센트, 고용수준 111퍼센트로 모두 과잉, 초과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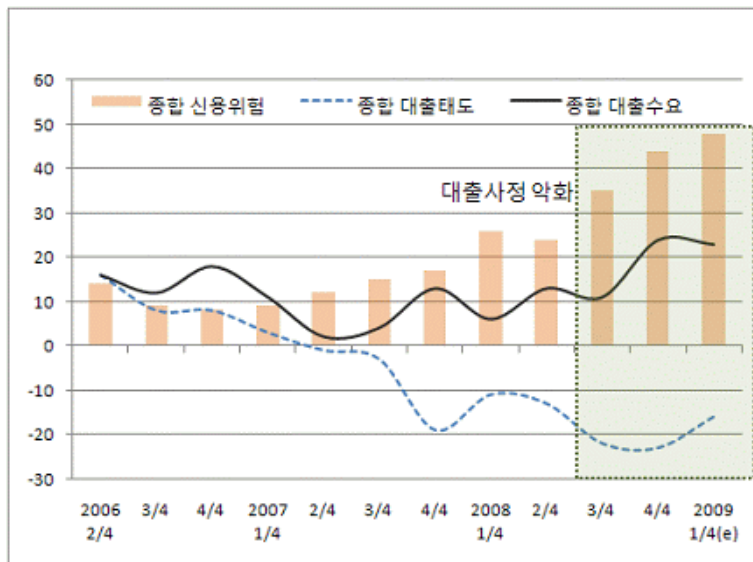
정부는 재정지출을 동원해 적극적인 내수경기 진작책을 써서 일감부족과 판매부진 상황을 개선해야겠지만, 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당장 '판매대금 지연'과 '자금조달 곤란'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있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원활한 자금조달 숨통을 트는 것이다.

1)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2009년 1월 업황전망", 2008.12.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기가 확산되던 때부터 막혀버린 중소기업 자금 조달 통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CD와 은행채 금리는 지난 연말 이후 낮아졌지만 기업어음(CP)과 회사채(BBB+) 금리는 1월 초 현재 각각 6.4퍼센트와 9.7퍼센트로 지난해 9월보다 여전히 높은 형편이다.<sup>2)</sup>

그렇다면 기업이 선택할 마지막 자금 조달 수단은 은행 대출이다. 한국은행의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지난해 3분기 이후부터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거꾸로 은행의 대출태도는 두 배 이상 위축되고 있다.<sup>3)</sup>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부도위험과 신용위험이 높아져 대출이 어렵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상은 은행 자체의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라는 내부 요인이 더 크다.

[그림2] 국내은행 대출행태지수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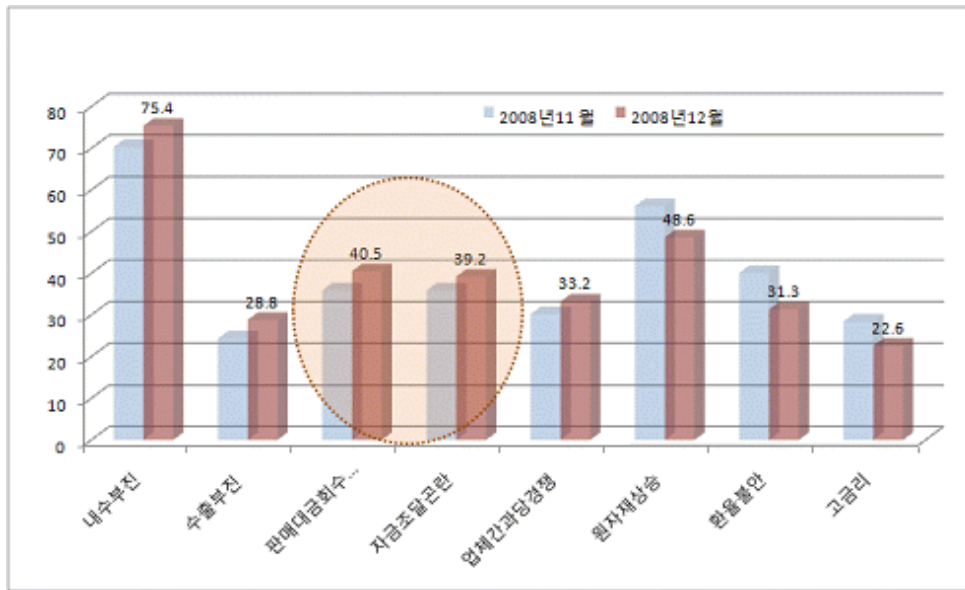


일부 건설사와 조선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부실과 방만 경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부도위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다. 환율폭등으로 원자재가가 떨어지지 않고, 신용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으며, 수출과

2) 한국은행, “2008년 12중 금융시장 동향”, 2009.1.  
3)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2009.1.

내수 추락으로 판매통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기업은 납품가 인상에 인색한데다 어음결제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은행은 금융위험 회피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제일 먼저 줄여버렸다.

[그림3] 중소제조업 경영애로 사항(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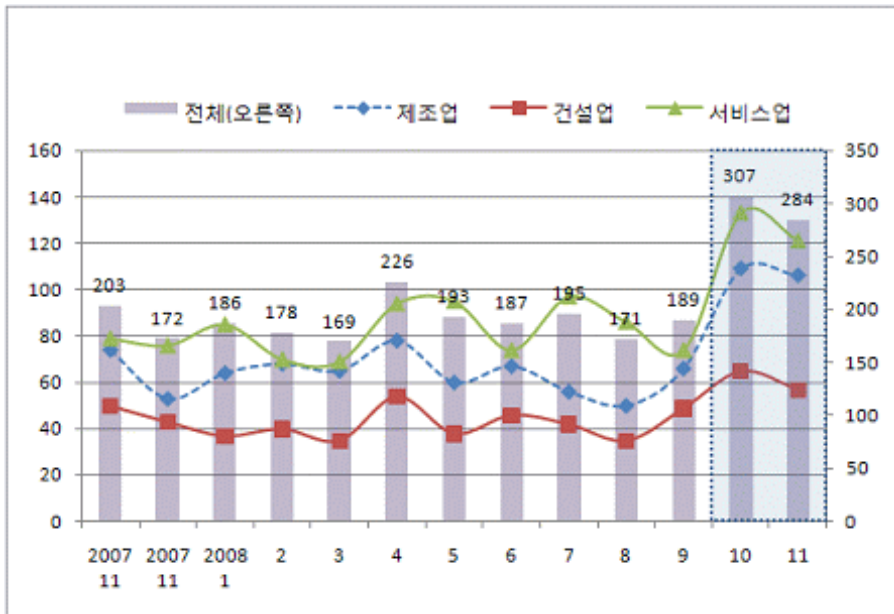
특히 한동안 어음결제 비중을 줄여왔던 대기업들이 다시 현금대신 어음을, 그것도 3개월 이상 어음을 대폭 늘리면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2007년까지만 해도 30퍼센트 수준이었던 어음결제 비중이 2008년 4분기에 45퍼센트를 넘어선 실정이다.<sup>4)</sup> 그러다 보니 지난해 10월부터 어음부도 업체수가 대략 100개 이상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정부가 후선에서 은행을 독려하고 은행이 전방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메커니즘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정부가 은행에 자금지원을 대대적으로 했지만 은행으로 들어간 자금은 중소기업으로 다시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은행은 넘쳐나는 자금으로 단기금융투자신탁(MMF)과 같은 초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4) 한국일보 2009.1.7.

서 자금이 금융권 안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덕분에 지난 8일 MMF 잔액은 사상 첫 100조 원을 돌파했다.<sup>5)</sup>

[그림4] 산업별 어음 부도 업체 수 월별 추이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무엇인가.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을 살린다고 10조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혜택은 대부분 은행채 매입이나 금융채 매입에 사용되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20조 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여 은행 살리기에 나서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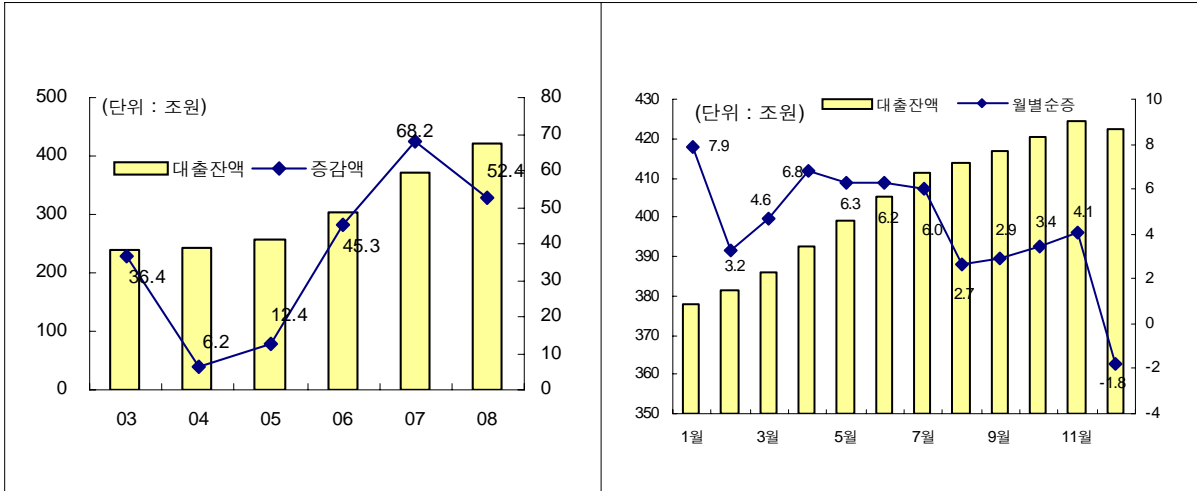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2009년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50조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순 증가 금액인 52조 원보다도 적고, 그나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2조 원을 추가로 더 대출한다는 전제 아래에서였다.<sup>6)</sup> 이 정도는 일상적인 대책이지 정부 표현대로 '비상경제정부'에 맞는 비상 대책이라 할 수 없다.

5) 한국일보 2009.1.10.

6) 금융위원회, "08년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09년 지원계획", 2009.1.

[그림5] 연도별 원화중기대출 현황

[그림6] 2008년 원화중기대출 현황



별도의 '중소기업 50조 자금공급펀드'를 조성하고, 정부와, 금융기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운영기구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적실하게 자금공급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이 우리 경제에 절실한 내수기반을 회복하는 길이고, 고용의 88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의 방파제'인 중소기업을 지키는 길이다.

